

# (주) 이원양행 編

—체계적인 종합 임상검사센터 운영—

이번호에는 방사성동위원소와 동위원소 장비기기 등을 판매하는 (주)이원양행을 탐방하였다.

이 회사는 올림픽공원에서 동남쪽에 위치한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건평 500평 규모의 현대식 사옥을 신축해서 지난 8월 중순에 이전해서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983년 창업해서 현재 종업원은 100여명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7개의 지방 사무소를 설치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즉시 고객의 주문에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판매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이회사의 최고 경영 책임자인 박병설 사장의 첫인상은 천진난만스러워 보였다. 특히 회색의 장발과 童顔(?)에서 스며 나오는 미소는 누가 보아도 호감이 가는 인상이었다.

또한 동위원소 판매회사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임상 검사 센터(Commercial Laboratory)를 설립하여 최신 고가 장비인 감마 카운터 등 방사선 측정 장비와 성분 수혈기, 혈당 측정기, 면역측정기, 단백질 분석기기

를 갖추고 전문기술 요원이 검사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임상검사 센터에는 전국의 종합병원, 연구소 및 기타 자체 검사 능력이 없는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검체를 의뢰 받아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검사를 비롯하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임상검사, 검체수의 소량으로 경제적 채산성이 맞지 않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특수검사 등 검사의 종류나 범위가 다양하였다.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수한 기술 인력과 첨단장비를 갖춘 체계적인 종합검사 센터가 설립운영되어 왔었으나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인 종합검사센터가 없어 검사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박사장은 이의 필요성을 통감하여 체계화된 현재의 임상 검사 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검사 센터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검사센터로 발전시키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현대사회를 질병의 고통이 없는 보다 안락한 사회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연구 노력하고 있는 학계나 의료계의 뒤에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최신 첨단 장비나 동위원소를 이용한 진단 시약의 보급과 임상검사센터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미력이나마 사회에 보탬이 되고저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박사장은 힘주어 말한다.

이회사는 전 종업원의 인화단결과 건강관리, 정서 함양을 위하여 보링회, 낚시회, 산악회, 신우회(종교 모임)을 조직하여 본인의 취양에 따라 가입하여 매월 1회씩 모임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일체의 비용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하여 노사간에 벽이 없는 한가족으로서 일체감을 갖고 상호 갈등이나 불만이 없는 화목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박사장은 말한다. 이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종업원이 이 회사를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회사와 더불어 자신이 커간다는 신념을 갖고 각자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준 덕분이라고... 이를 실증하여 주는 예로써 회사 창업 이래 결혼한 여직원 3명 이외에 이회사를 떠난 사람이 한사람도 없다고 한다. 전 종업원이 이원양행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회사와 더불어 커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이라 생각된다.

